

지난 6일 국제 학무부총장에 취임한 이 부총장을 만나 임기 동안의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양 선본의 주요 공약의 실현성을 들어본다.

대학주보



스포츠 교류전, '제1회 더 라이언 매치'

지난 19일 국제캠에서 제 1회 '더 라이언 매치'가 열렸다. 이날 농구부와 농구 동아리의 주 경기장으로 쓰인 선승관은 개최식부터 우리학교와 한양대 학생들로 북적였다. 두 학교의 현수막과 유니폼으로 가득찬 경기장은 평소와 사뭇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경기는 농구 동아리, 농구부, 축구 동아리, 축구부 네 개 종목으로 진행된 가운데, 우리학교는 축구부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

(사진=김예찬 기자)

국제 총학 비대위로 전환 확정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24일부터 시흘간 양 캠퍼스 학생회 총선거가 이뤄지는 가운데, 총 27개 선거구 중 8곳에서 '입후보자 없음'으로 선거가 무산됐다. 이중엔 국제캠 총학 선거도 포함돼 내년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이 확정됐다. 서울캠 총학 선거는 기호 1번의 '퀘스트(KHU;EST)' 선본과 기호 2번의 '노하우(KnowHow)' 선본이 출마했다. 퀘스트 선본 정후보는 정종원(Hostipality경영학 2021) 씨, 부후보는 손예지(미디어학 2024) 씨다. 노하우 선본 정후보는 공선진(행정학 2022) 씨, 부후보는 성지창(약학 2022) 씨다.

선거가 무산된 선거구는 ▲국제캠 총학 ▲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 ▲경영대 ▲국제대 ▲응과대 ▲전경대 ▲정경대 ▲호관대로, 총 8개다. 선거가 진행되는 선거구 중에서도 경선인 ▲서울캠 총학 ▲생활과학대 ▲약학대학을 제외한 선거구는 모두 단선이다. 단선은 투표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가 무산돼 단과대 비대위는 늘어날 수 있다.

학생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줄고 있다. 내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자치기구는 최소 8개로, 2021년에 이뤄진 선거 이후 최대다. 최근 4년간 이뤄진 학생회 선거 중 연도별로 선거가 무산된 학생자치기구 수는 2021년 10개, 2022년 1개, 2023년 5개, 2024년 3개다.

안종현(전자정보학 2025) 씨는 "선거가 진행되는지 몰랐다"며 "주변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연호(응용수학 2025) 씨는 "학생 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었다"며 "학생 자치에 너무 무관심한 태도는 우리학교의 고유한 특색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서 생성형 AI 사용 부정행위 평가방식 전환 계기 삼자는 의견도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한민 기자 likeasloo@khu.ac.kr

최근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 중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하지만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다수의 대학에서 AI 부정행위 대응 체계 등 제도적 장치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에서 약 600명이 듣는 교양 수업인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의 비대면 중간시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대는 '통계 학실험'이라는 교양 과목의 대면 중간시험에서 AI 사용이 적발되어 재시험이 결정됐으며, 고려대 또한 공과대학의 한 전공수업에서 반복 응시 및 AI 부정행위 정황 등이 발견돼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권 9개 대학(▲고려대 ▲서

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을 살펴본 결과, 대학 차원의 AI 부정행위 대응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칙 및 징계지침을 살펴보면, 부정행위자에 대해 근신, 정학, 제명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제시돼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학칙 제35조(성적의 무효)에서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I 기반 부정행위에 대한 명시적 기준은 없다. 시험·과제에서 AI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규정 또한 부재하다. 학사지원팀과 교수 학습개발원이 제공하는 'ChatGPT 활용 가이드라인'과 교수학습개발원의 '생성형 AI의 교수학습 활용 가이드' 역시 수업 내 AI 활용 여부

와 기준을 교수 재량에 맡기고 있

어, 실제 AI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학은 잇따른 문제를 계기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학사과는 "12월 중 전반적인 AI 활용 기준을 담은 윤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세대 홍보팀은 "이미 존재하는 AI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고려대는 AI·오픈채팅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과목에 화면 공유와 다른 프로그램 실행을 방지하는 '트러스트 록(TRUST LOCK)' 시스템을 도입 할 예정이다. '트러스트록' 시스템은 우리학교가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지원팀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접수된 적은 없다"며 "아직까지 AI 부정행위 관련 방

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AI 관련 부정행위가 문제임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세대 첨단융합공학부 김시호(전기전자공학) 교수는 "AI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차원에서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며 "기준의 교육 제도를 벗어나 토론식 교육, 실습형 교육, 융합 학제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는 "이제 결과가 아닌 과정을 묻는 평가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그 외에도 중·고등학교 수행평가처럼 수업 중 토론 등으로 교수 가 생각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 방식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 종합

대학가 인권기구 위기, 공감의제 발굴로 극복해야

오승현 기자 dirk0212@knu.ac.kr

과거 총여학생회 폐지 후 생긴 학생·소수자위원회(학소위)는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대변한다. 하지만, 최근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학소위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 5월 존폐 논의에 휘둘린 것이 대표적 예다. 우리신문은 학소위가 처한 현실의 원인과 그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대학가 인권기구 존폐 위기 탈정치화 분위기가 한몫

최근 대학가의 인권 단체와 기구들이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 지난 4월,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생활자치도서관의 특별자치기구 지위 재인준을 부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에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쓴 게 그 이유였다. 고려대 또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지난 5월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여학생위원회가 외부 활동에 치중됐다는 이유로 징계를 부여했다. 징계 결과 두 기구를 없애고 새 기구를 만드는 신설 합병을 결정했다. 우리학교 학소위 논란 또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 초청’에 대한 비판 대자보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경대 신하균(사회학 2023) 학생회장은 “학소위 활동에 인권은 없고 정치적 의사 표현만이 가능하다”며 “이런 활동은 지원 없이 동아리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

학 2021) 문과대 학생회장은 “학소위의 활동이 학내보단 외부 활동에 집중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나눔’의 기진 운영위원은 “대학 사회 전반에서 폐미니즘, 인권, 소수자 권리, 나아가 ‘학생의 권리’ 자체를 이야기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소위 등 인권 단체의 존재 이유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소위를 향한 관심 고조 혐오·애정동시에 증폭되는 모습

논란 이후, 학소위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관심은 커진 상태다. 학소위 하현희(국어국문학 2024)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학소위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논란 이후에는 에브리타임 중심으로 학소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으로 올라오고 학소위를 새로 알게된 학생들도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과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 모두 강하게 의견을 표현했던 계기였다”며 “혐오와 애정 둘 다 많이 생긴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정치권과의 유대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활동 전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하 부위원장은 “탄핵 시위를 예로 들자면 특정 정당의 행사가 아니라 범국민적 집회였다”며 “정치권과의 유대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었다”고 말했다. 또 “학소위가 추구하는 것은



학소위 존폐 논의 이후 학내 구성원이 학소위의 역할에 의문을 품고 있다. (사진=하시언 기자)

평등’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라며 “특정 정체성 중심이 아니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소수자의 존재를 언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중앙대 인권 네트워크 운영진 김영서 씨는 “소수자 인권을 말하는 건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정치와 분리되려고 할 때 오히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모순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연세대 박주현(사회학) 교수는 “학생 사회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권을 때로는 주체적으로 이용해 다양한 의제를 설정 및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탈정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소수자를 억압하는 흐름과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냉소적인 시각 탈피 위해 인권 의제 폭넓게 다룰수도

전문가들은 학내 구성원의 냉소적인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소위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 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매달 다른 시의적절한 이슈를 선정해 활동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인권 의제를 폭넓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화여대 학소위의 경우 ‘사이버불링’ 피해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은 인권 가이드라인 개정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외대 생활자치도서관 또한 작년 동대문구 전세 사기 논란 당시 피해자 단체와 연대해 소수자 범위를 넓혀갔다. 학소위 하 부위원장은 “존폐 논의를 겪은 후 학내 활

동을 넓히려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교양으로 젠더와 폐미니즘, 반성폭력 교육 등을 제정하는 등의 제안을 한다거나 장애 의제 관련 핫라인 구축, 양심 생리대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목소리 과대 대표 가능성도 학소위 존재가치 여전해

일부 학생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 교수는 “페미니즘 리부트와 백래시를 거치면서 젠더 문제에 대해 전 사회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진 상황과도 비슷하다”며 “학소위 같은 단체들이 ‘학생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진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본인의 더 심한 고통과 피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개개인의 ‘고통배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 위원은 “학소위가 다루는 인권 및 소수자의 문제는 대학 졸업 이후의 사회에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있다면, 그들을 대표할 자치 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다양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학소위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 안전대책 미흡

원희재 기자 whj6470@knu.ac.kr

【국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캠퍼스 내 제도가 부실하고 관리단속이 미흡해 학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버스가 진입하고 경사로가 많은 캠퍼스 특성상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현직(국제학 2020) 씨는 최근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고 씨는 “평소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와중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었다”며 “전동킥보드를 서너 대 줄지어 주차한 경우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도로의 모퉁이, 버스 정류장 등에 주차가 불가하다. 하지만 고 씨의 사례처럼 캠퍼스内外 보도와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현(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 2024)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며 넘어지는 운전자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국제캠은 경사로가 많은 지형상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실제로 기자가 선승관에서 체육대학관으로 이어지는 경사로에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결과 최고 속도



체육대학 앞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무더기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원희재 기자)

는 28km/h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항 중 PM의 최고속도 제한은 25km/h다. 교내 도로 속도제한은 20km/h 또한 상회한다.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조병휘(도로공학)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아 경사로에서의 속도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내 경사로 구조 자체가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경사로가 끝나는 지점 이후에는 직선거리가 이어져야 운전자는 속도 조절과 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체육대학관 옆 오르막길에서 선승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해당 구역에 대해 조 교수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주의력 확보가 어려워 도로공학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 차원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페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자 대림대 미

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구시대적인 법적 제도의 한계를 메울 새로운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며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 영향이 적어 캠퍼스 내 자체 규정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작년 7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으로 캠퍼스 내에도 적용된다. 대학은 이전에 책임지지 않았던 교통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PM 관련 안전 규정 및 시설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제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PM 불법 주정차 방지와 질서 있는 이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에서는 PM 수거 및 출입금지를 업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캠퍼스 지형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 평가 체계를 구축해 위험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학생역량 강화 최우선…균형 잡힌 학무 행정 힘쓸 것”

교육 혁신 · 공간 최적화 · 대학원 활성화도 강조

권도연 기자 khudy94@knu.ac.kr

인터뷰 – 이은열 신임 국제 학무부총장

이은열(화학공학) 교수가 지난 6일 국제 학무부총장에 취임했다. 신임 학무부총장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이 부총장은 임기 동안 학생 역량 증진을 위한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캠퍼스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학생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Q. 지난해까지 공대 학장직을 수행했는데, 단과대학 학장의 관점과 학무부총장으로서의 관점에서 변화가 있다면?

공과대학이 국제캠에서 가장 큰 단과대학이긴 하지만, 캠퍼스 전체로 보면 각 학문 분야가 다르고 고유한 발전을 이루면서도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점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캠퍼스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인 만큼 생각의 범위와 만나는 사람의 폭도 확연히 넓어졌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일이라 느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임기 동안 주력할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학생 역량 증진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현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 총장님께서 추진 중인 ‘교육 수월성 제고’ 정책과도 같은 맥락으로, 가칭 ‘교육혁신처’를 통합 부서로 신설해 빠르게 운영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연구 경쟁력 강화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대학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부생이 박사 과정으로 더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며 방안을 구상 중이다. 나아가 ‘경희 연구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우리학교는 우주과학과 의학 계열에 강점이 있다. 우주 환경 질병 연구, 방사선·건강 문제 대응 연구,



이은열 학무부총장은 “학생 역량 증진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현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권도연 기자)

이공계와의 우주 에너지 연구 등 우리학교만의 차별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출범한 융합기술 연구원을 중심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연구 분야를 구축하고 싶다.

세 번째는 캠퍼스 인프라 확충이다. ‘스페이스21’ 2단계 사업의 핵심인 미래과학관 건립 추진이 해당된다. 학교 본부와 법인 차원의 절차가 계획돼 있으므로, 실현 단계에서 부총장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Q. 무전공 제도, 다전공 의무이수와 같은 학사 제도는 특정 학과 쓸림 현상이 우려된다. 관련해 발생 가능한 문제와 해결 방안은?

전공 쓸림 현상은 사회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기에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학문 수요가 많으면 추후 인력 공급이 많아져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또 유망한 전공이라 해도 적성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전공 선택 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충분히 여러 전공을 알아가고, 자신에게 잘 맞는 전공을 찾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더

욱 내실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공 쓸림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 및 공간 확보와 같은 인프라 문제도 관건이다. 이를 위해 캠퍼스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학교 본부 차원에서 구축했다. 이전에는 단과대에 한정된 공간 분배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캠퍼스 전체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연한 공간 배치를 구현할 것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강의를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할 수 있다.

Q. 이공계 인재 이탈을 완화하려면?

이공계 인재 이탈 현상이 심화하는 것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직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더 나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산학 연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계약학과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산업 수요에 맞춰 커리큘럼도

개편하고 있다. 교수님들마다 강의에 새로운 내용들을 끊임없이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진출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교육 혁신 시스템을 가져가려 한다.

Q. 공대 분관 설립이 확정된 가운데, 다른 단과대학 인프라 향상에 관해 생각하는 방향은?

교내 여러 건물이 노후화돼 있기도 하고, 공부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각 단과대 건물 주변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을텐데, 외부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지 학교 법인과도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 공대 분관의 경우 내년 4월에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목표는 2028년 1학기 내로 완공식을 하는 것이다.

Q. 미래과학관 신축 사업의 경 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가?

미래과학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재원 조달이 있어야 한다.

현재 공간 수요를 파악하며 어떻게 채울지 논의하는 단계다. 추후 이런 부분을 학생들과 공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Q. 학생들이 요구했던 개선 과제와 학교 차원에서 우선 해결하려는 사안은?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 여건 개선인 것 같다. 공간이나 교육 콘텐츠가 해당될 텐데, 학교가 더 나은 교육으로 학생 역량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

결국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공대 학장에 있을 당시 식사나 술자리도 가지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간 것 같다. 총학생회를 비롯해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할 생각이다. 곧 꾸며질 비상대책위원회나 내년 보궐선거로 구성될 총학과 자주 자리를 가지며 의견을 나누려 한다. 학생 의견을 듣고 학교의 입장도 설명하며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면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기획

학문단위 조정·대학영어, 장기 과제로 버스노선 다양화 공약도 시행 미지수

권도연 기자 khudy94@knu.ac.kr

총학 공약점검－국제캠퍼스

우리신문은 지난호에서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를 만나 공약을 점검했다. 이번호에선 국제캠 총학의 주요 공약을 점검했다.

학문 단위 재조정 공약
본부 부서 통합으로 조정

이원화 캠퍼스 발전 위원회를 신설해 국제캠을 이공계 중심 과학 캠퍼스로의 특성화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총학의 핵심 공약이었다. 총학은 이를 대학 본부에 전달했으나, 본부는 여러 행정부서를 '통합형 부서'로 재편하자는 방향을 예제안했다. 현재 학사지원처와 미래혁신단 통합이 이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총학은 "본부에 학문 단위 재조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본부로부터 즉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답변받았다"면서도 "대학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이를 숙원사업으로 인지해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학무부총장실 서경아 실장은 "학문단위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무거운 주제이기에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외대 학장님과 학무부총장님께서 시대



총학은 "많은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중인 온·오프라인 강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하시언 기자)

에 맞게끔 학문 단위가 필요하지 않느지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대학영어 2→3학점
제도 시행 여부는 '미지수'

대학영어를 기준 2학점에서 3학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은 취업 및 실무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중심' 실용 영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시됐다. 현재 대학영어 수업 시수와 시간이 3학점 과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지난 4월, 소통간담회에서 박병준(국제학 2017) 총학생회장은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에 "3학점 과

목과 수업량이 동일함에도 2학점만 부여되는 대학영어 과목의 현행 체계는 학생들의 노력과 학습 부담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3학점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효과적인 영어 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대학영어 과목은 양캠 후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국제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 추후 양캠 후마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에 그쳤다.

총학생회는 현재 해당 사안 추진 진행 상황에 관해 "국제캠 후마에서 3학점 인상 방향에 동의했으며

수업 구성도 실용 역량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育과정 변경은 정해진 개편 주기에 맞춰 본부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국제캠 후마 이준태 학장은 "1학기 초 학생회장을 만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지만, 그 이후로는 관련 내용을 학생회와 논의한 적 없고 현재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없다"며 "대학영어 학점 인상은 후마니타스의 상황만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졸업 학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국제캠 후마 내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버스 노선 공약
예산 문제로 불투명

총학은 우리학교에서 영통역과 망포역을 경유하는 마을 및 시내버스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통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돼 올해 추진이 불가했다. 총학은 "지자체 예산은 대부분 전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총학생회 임기 내 신규 예산 반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계획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시 버스운영팀 차영재 주무관은 "차고지에 수용할 수 있는 버스 대수, 차고지 시설 등을

파악해 자료를 제공해야 시에서도 운수 회사에 관련 사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주무관은 관련 자료를 총학과 학교 측에서 공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간담회 이후로 공문을 주고받거나 회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이병숙 의원실 김인겸 정책지원관은 "버스 진입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선례를 찾아보면서 관련 규정과 근거를 조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은 "경기도의원과 버스운영팀으로부터는 예산상 올해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답변받아 수원시 의원과의 직접 소통으로 논의를 이어 왔다"며 "현재도 수원시 의원과 정기 미팅을 통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소통간담회 열려
총학, "인기 강좌 수업 확대할 것"

한편 지난 18일 치러진 국제캠 소통간담회에서 총학생회는 이행 완료 공약으로 ▲통합앱을 통한 성적 자동 안내 ▲군e러닝 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 상향 ▲군복무 및 사회복무 시 봉사활동 학점 인정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 도입 ▲일부 교내 버스 노선 차고지까지 확대 ▲공간대여 시스템 확대 ▲교과목 e북 추진 등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 도입에 관해 "인기 강좌의 경우 수강 인원 제한으로 학생들이 수강을 원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일부 시범 운영 중인 하이브리드 강좌를 더욱 확대해 많은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KHUNNEWS_JUBO

퀘스트 선본, 교양과목 절대평가로 전환 노하우 선본, 최대 6학점 학점지우개제 추진

김민영 기자 myk5060@knu.ac.kr
이서현 기자 is4203850@knu.ac.kr

총학생회 토론회

【서울】 대학주보·대학의소리방 송국·영어신문사 학내 3개 언론사가 함께 주관한 제58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토론회 ‘2026 경희의 선택’이 지난 20일 치러졌다.

KHU:EST(퀘스트) 선본과 KnowHow(노하우) 선본의 정·부 후보가 상대 진영의 공약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공청회 자리에는 퀘스트 선본의 정종원(Hospitality경영학 2021) 정후보와 손예지(미디어학 2024) 부후보, 노하우 선본의 공선진(행정학 2022) 정후보와 성지창(약학 2022) 부후보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후보자 정견 발표, 양측 후보자 자질 검증 및 선거운동본부 공약 점검, 언론사 질의응답, 방청객 질의응답, 후보자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퀘스트 ‘교양과목 절대평가’ 노하우 ‘학점 지우개 제도’

퀘스트 선본은 ▲교양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절대평가 전환 도입이 어렵다면 ‘역량중심평가’로 대체하는 논의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역량중심평가란 학생 역량을 중심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제도다. 다만 과목마다 일일이 평가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 정후보는 “해외 대학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량 또는 정성평가 사이에서 학생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 말했다.

노하우 선본은 최대 6학점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 지우개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정후보는 “필수교양·전공필수·전공기초·교직이수 과목 등 졸업요건에 영향을 주는 과목은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은 ▲동대문구 청년 ‘만원주택’이다. 동작구의 만원주택(양녕청년주택)을 참고한 것으로, 무주택 청년을 대상 월 1만 원으로 거주 공간 확보를 돋는다.

학점 인플레이션 및 예산 확보 치열한 논의 오가



퀘스트 선본은 ‘교양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노하우 선본은 ‘학점 지우개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진=박류빈 기자)



경선으로 치러질 총학 선거는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사진=박류빈 기자)

퀘스트 선본과 노하우 선본은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두 선본의 ‘교양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학점 지우개 제도’ 공약 모두 학점 인플레이션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퀘스트 손 부후보는 성적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언론 질의에 “절대 평가는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니”라며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같다”고 답했다.

학점 삭제에 따른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노하우 공정후보는 “무분별한 학점 삭제를 막기 위해 5학기 이수 이후에만 학점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제한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선본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퀘스트 선본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대운동장 잔디화 예산 마련에 대해 퀘스트 정 정후보는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역시 동대문구 내 대학으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잔디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운동장 잔디화는 2024년 소통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으로, 학교 측은 사업 예산규모가 적지 않아 즉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 을 밝힌 바 있다. 한국외대는 약 7억 원의 예산으로 대운동장 잔디화를

완료했다.

노하우 선본의 ‘만원주택’ 공약 역시 예산 확보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에 노하우 공정후보는 “우선 총학생회와 동대문구청 사이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구청에 전달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동작구의 사례처럼 동대문구에 지자체 차원의 재정 구조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해당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청년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체계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

노하우 성 부후보는 “회기 주거 실태를 분석한 제안서를 동대문구의회에 전달했다”며 “내년 추경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만원주택이 실제로 조성된다 하더라도,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최종발언에서 퀘스트 정 정후보는 “학생 사회가 반복해 온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정후보는 “경희 구성원의 오늘과 내일의 실질적인 변화를 드릴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선으로 치러질 총학 선거는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한편, 경선으로 치러질 총학 선거는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6 종합

고교학점제 도입 앞두고 5등급 평가 체계 준비

“변별력·공정성 확보가 입학처의 최우선 과제”

하시언 기자 hse0622@knu.ac.kr

인터뷰 – 최진무 신임 입학처장

최진무 신임 입학처장이 이번 달 임기를 시작했다. 최 처장을 만나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이력 대입 반영 등 당면 과제와 향후 추진 목표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Q. 입학처장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입학처장의 임무는 공정하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제도가 그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관심있게 보는 현안은 고교학점제다.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됨으로써 내신이 5등급 체계로 전환된다. 5등급 체계 안에서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지, 더 불어 1등급에 학생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Q. 특정 학과 쏠림 현상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리학교의 대응은 무엇인가.

입학처가 해야 할 일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우리학교의 다양한 학과에 고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학과별 진로, 취업 방향



최 처장은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대학에 입학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돼 있다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사진=하시언 기자)

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Q. 무전공 선발 확대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초 역량이나 잠재력, 새롭게 정의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

무전공이 확대된다고 해서 인재상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전공 적합성 역시 입학할 때만 전공이 없다는 것이지, 졸업할 때는 전공이 있다. 무전공 입학생이라고 해서 전공이 의미 없지는 않다. 다만, 의대 면접과 유사한 심층 면접이 필요해 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의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전공 적합성을 확인

Q.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대입에 반영되는데, 학폭 이력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대학마다 학폭 호수에 따른 감점은 상이한데, 우리학교는 1~3호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학처가 여러 고등학교 교사를 만나본 결과, 3호까지는 학생들 간 다툼 수준의 사례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를 무시할 순 없지만, 이 단계에서부터 입학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오갔다.

반면, 4호부터는 20점 이상의 감

점이 적용되는데, 당락이 소수점 단위에서 결론 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합격이 어렵다고 본다.

Q. 학폭 대입 반영은 딜레마가 큰 문제인 만큼, 고려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 대학이 각 고등학교의 사내 내용을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고, 해당 학폭위가 제대로 구성됐는지,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학폭위 조치만으로도 이미 처벌이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대입까지 가져오면 이중 처벌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해당 문제는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지난 수능에서는 응시자의 80%가 사회탐구를 응시했다. 일명 ‘사탐론’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공계 기초 역량 저하 우려 속에서 우리학교의 선발 철학은 무엇인가.

‘사탐론’ 현상은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될 현상인지 더 지켜봐야 한다. 이과대학 부학장 재임 시절에도 기초 과학을 배우지 않은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지 논의가 있었다. 정규 과정에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겨울방학 프로그램이나 별도 수업을 개설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므로 본부와 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선발 방식에 있어서는 강화 면접 또는 논술과 다른 전형 방식을 섞는 입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수시·정시 전형 비율 조정과 관련해 우리학교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나?

앞으로는 수시와 정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두 전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 속 5등급제와 원점수 기반 평가가 블라인드 평가 상황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본다. 정시 역시 난이도 변동과 재수생에게 유리한 구조 형성 등 공정성 문제가 존재한다. 두 전형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핵심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우리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지원 전략을 전한다면?

무엇보다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대학에 입학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돼 있다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위해 현재 취하고 있는 태도가 일관되게 이어질 때 비로소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실험동물실 남기고 떠난 한의대…‘이전’ 현실적으로 어려워

리서영 기자 rsy1313@knu.ac.kr

【서울】 (구)한의과대학 4층에 남겨진 한의과대학 실험동물실이 공간 부족·기술 제약으로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의대 또한 (구)한의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본격적인 이전까지는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의대가 활용하는 실험동물 시설은 두 곳이다. 하나는 한의대가 직접 운영해 온 (구)한의대 실험동물실, 다른 하나는 스페이스21

10층에 위치한 중앙실험동물센터(중앙센터)다. 산학협력단 산하 부서로 운영되는 중앙센터는 대학 구성원 전체 연구력 제고를 위해 구축됐다. 운영 규정, 동물복지 기준, 시설 관리 등이 통합된 체계 아래 관리되며 연구 목적과 실험 방식에 있어 한의대 고유 연구와 차이가 있다.

실험동물실을 스페이스 21에 위치한 중앙센터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중앙센터에 한의대 동물을 모두 수용할 경우 약 80% 이상의 공간을 차지하게 돼, 본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

적이 제기된다. 한의대 고유 연구(침·한약 등) 특성상 동물 실험 공간과 처치실이 넓게 필요하지만, 중앙센터는 규모가 크지 않아 실험 공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의대, 치대, 약학대 등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자체 동물실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실험동물센터로 이전할 경우, 한의대 자체 동물실이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다.

중앙실험동물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의 이전 또한 쉽지 않다. 유전자 변형 동물(GM) 이전의 기술적 난관 때문이다.

한의대는 GM을 활용한 연구 비

중이 높은데, 기존 개체를 즉시 이동할 수 없어 약 18개월의 청정화 과정(3세대 교배) 또는 신규 개체 확보가 필요하다. 해당 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연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의대 동물실 TF는 “최근에는 의무부총장, 한의대 학장, 한의대 동물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의는 상당 부분 진전됐으나 아직 최종 확정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마철 등 (구)한의대 실험동물실에서는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한의대 동물실TF는 “배기·환기 시스템의 노후화와 밀폐·압력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사육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냄새가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험동물실 외부에 유리문을 추가 설치하고, 환풍기와 탈취기를 확충해 냄새 유입을 최소화했다”며 “전담자가 분뇨 처리와 케이지 세척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사육 실 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용함이 어색했다”…처음 마주하는 ‘보편적 외로움’

하시언 기자 hse0622@knu.ac.kr

청년 1인 가구④-심리

이번 청년 1인 가구 연속 기획에서는 처음 자취를 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외로움, 즉 ‘보편적 외로움’에 주목한다. 누구나 겪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정서적 고립, 혼자 사는 일상의 빈틈에서 스며드는 감정을 살펴본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러한 외로움이 보다 깊어진 상태인 고립은 돈 청년의 현실을 다룰 예정이다.

“처음 6개월은 많이 외로웠어요. 요새는 OTT나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집안일을 해요.” 자취 초기, 이가현(생물학 2025) 씨가 느낀 감정은 ‘조용함 사이의 어색함’이었다. 부모님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고요함이 이토록이나 생경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어색해 사람들이 떠드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고자 배경음 삼아 영상을 틀어놓는다.

인천이 본가인 이동명(회계세무학 2024) 씨도 “집 앞 자주 가던 음식점과 비슷한 맛을 찾거나 공원, 모교, 살던 동네와 비슷한 무언기를 마주할 때면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익숙한 풍경이 주던 안정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 2022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1인 가구 중 외로움 비율이 약 62%, 사회적 고립 비율은 13.6%,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 비율이 12.8%로 확인됐다. 많은 1인 가구가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지내던 일상이 끝난 뒤 도어락이 닫히는 순간, 6평 남짓의 공간은 한순간에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은 때로 편안함이 아니라, ‘혼자 있음’을 실감하게 만드는 공허함으로 이어지곤 한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일상 속 스며드는 무력감

혼자 사는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집은 쉬는 공간임에 동시에,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외로움은 더욱 증폭된다.

6년째 자취 중인 최보라(조리푸



양여진

청년 1인 가구의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주거 환경, 경제적 압박 등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

**협소한 공간과 구조로 인한
정서적 위축
보안 취약한 동네에서의
지속적인 긴장
결국 자존감 저하, 대인기피,
우울감 혹은 수면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낀다”며 “신이 문 쪽에서 자취하는데, 늦은 밤이면 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 뒤를 계속 살피게 된다”며 주거 환경이 주는 불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년 1인 가구의 불안정한 거주 형태는 곧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준하(건축학) 교수는 “주거는 단순한 숙식의 공간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는 ‘재상산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협소한 공간과 구조로 인한 정서적 위축 및 보안이 취약한 동네에서의 지속적인 긴장은 결국 자존감 저하, 대인기피, 우울감 혹은 수면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피하는 방법으로 해결

그러나 외로움이 모든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청년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은 ‘외로울 틈을 두지 않기’가 방법이었다.

올해 3월부터 자취를 시작한 이상혁(정치외교학 2024) 씨는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알바를 간다”

며 “알바가 끝나고도 바로 운동을 가서 귀가 시간이 대체로 밤 10시를 넘겨서 외로울 틈이 없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최보라 씨 역시 “외로움이란 감정을 느끼기 전 그냥 몸을 혹사시킨다”며 “일을 무리하게 많이 그냥 자버리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가현 씨 역시 “밥을 해먹고 식곤증을 일부러 오게 해서 자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은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피하는 형태지만, 많은 청년이 실제로 선택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자신만의 취향이 깃든 공간 재구성으로 장소감 부여

또 다른 방식은 공간을 스스로의 취향으로 채워 넣는 것이다. 원룸이라도 조명, 커튼, 식물 등으로 꾸미면 감정의 안정을 크게 얻는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가현 씨는 “집에 노란 스탠드 조명을 틀고 있으면 내 집 같은 느낌을 받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을 어디 둬야 하는지 알아갈 때도 내 집임을 깨닫게 된다”며 자신만의 인테리어를 통해 안정감을 찾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서(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씨는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편인데, 나의 취향이 깃든 아이템들을 집에 두다 보면 진짜 내 집이 된 거 같다”며 “손길이 더해질수록 장소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여섯 개의 식물을 기르는데, 썩지 않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다 보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소는 인간의 애착과 경험이 더해진 의미로도 작용한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원룸에 나의 것을 더해가면 어느새 ‘나만의 공간’이 되어간다. 공간환경심리를 연구하는 조지영(이학) 교수는 “몸과 마음은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좁은 공간에 갇혀있지 않고 다양한 넓은 공간을 공유해 같이 식사하고 교류, 공부도 하는 공유주거의 형태가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언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주거 환경, 경제적 압박 등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러한 외로움이 더욱 깊어진 형태인 ‘고립은 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의 현실을 다룰 예정이다.

8 문화

“월급만으로는 부자되기 힘들어”…대학생 개미 투자 열풍

김유경 기자 ghafis@knu.ac.kr

〈문화트렌드 연속 기획〉
⑤재테크하는 대학생

우리신문은 청년·학생의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기사를 연재한다. 다섯 번째 순서로, 대학생 재테크 열풍에 대해 알아본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미국 주식의 성장 세가 이어지며 전 연령층의 관심이 뜨겁다. 대학생들 역시 여러 재테크 방식에 눈을 돌리고 있다. Z세대와 금융을 결합한 ‘자이낸스(Z+Finance)’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흐름 속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월급만으로는 부자 힘들어”
증가하는 대학생 개인 투자자

비누랩스(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리타임’ 제작사)가 실시한 설문조사(대학생 500명 대상)에 따르면, 개인 투자 중인 대학생이 2023년 27.6%에서 올해 43.4%로 15.8%p 증가했다. 또한, 하나금융연구소는 Z세대의 투자·신탁 거래액이 2023년 17.6%에서 이듬해 21.4%로 3.8%p 증가했음을 발표했다.

투자 9년 차 김재현(물리학 박사 5기) 씨는 “어릴 때 월급 같은 고정 수입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투자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성인이 되자마자 투자를 시작한 박채원(스포츠의학 2022) 씨도 “현금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시대에 저축보다는 주식이 수익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시드머니는 아르바이트와 군적금으로 마련하는 학생이 많았다. 김 씨는 “군대에서 모은 돈,アルバ해서 번 돈을 모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니까 부모님께서 투자 경험을 쌓아보라고 용돈을 주셨다”며 “휴학하고 알바를 많이 해서 돈을 더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캠 주식경제 동아리 ‘ABS’는 경제, 주식 투자 관련 스터디와 자산운용, 레포트, 매크로 분석 등을 통한 실제 주식 투자를 한다. 최석훈(경영학 2020) 회장은 “기존 인원에서 다음 학기에 활동을 이어가는 부원이 올해는 보통 때에 비해 1.5배 정도 늘었고, 가입 지원자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투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체감한다”고



주식경제동아리 ABS의 투자기초반 스터디 부원들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사진=김유경 기자)

말했다.

양제열(경영학) 교수는 개인 투자 증가 현상을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석했다. 첫째로는 “월급으로 큰돈 모으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월급을 불리기 위한 투자가 증가했다”고 말했고, 이어 “예전에는 주식을 위험한 투자 수단으로만 보는 분위기가 컸는데,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주식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예전보다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미국주식부터 부동산 경매까지 다양한 투자 방식과 수단

재테크를 하는 방식과 투자 수단은 다양하다. 최근 주식뿐 아니라 미국 주식, 채권, 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분산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 김 씨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금 등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3월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최성일(사회학 2023) 씨는 “뉴스에서 미국 주식 얘기가 많이 들려서 현재는 미국 주식에 비중을 많이 두고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로 투자를 시작했던 김동현(국제학 2020) 씨는 “현재 투자 비중은 미국 주식 50%, 국내 주식 30%, 나머지는 ETF나 실물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분산투자를 하는 이유는 하나에 몰아서 투자했을 때 따라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다.

김 씨는 “언제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자산군에 몰아서 투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미국 주식에 눈을 돌리는 이유로 양 교수는 접근 용이성을 꼽았다. “예전에 미국 장에 투자하려면 복잡했는데, 오늘날에는 비대면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며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투자 열기에 확실히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트 분석부터 기업 발굴까지 재테크 공부는 필수적

양 교수는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우리나라는 금융 정책 자체가 규제가 많은데, 개인 투자자의 금융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면 금융제도의 발전까지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은행 경희대 출장소 심은주 소장은 “취직 전이기 때문에 고정 수익이 없는 대학생이 처음 재테크를 시작할 때는 전문 지식을 가진 펀드매니저를 통해 투자하거나 소수점 주식을 이용하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투자 공부와 모의투자를 먼저 해보고 실전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도 대학생이 재테크를 함에 있어 투자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픈채팅방 등에서 떠도는 소문은 성공 사례도 적을 뿐 아니라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경제, 기업 공부와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재테크 수단으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금 등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도
공부하고 있다.

”

쇼츠·릴스 시대에도 문예창작 사랑, “마음 담은 글을 쓴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nu.ac.kr

지난 1년 동안 20대 평균 독서량은 9.4권이었다. 13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5 사회조사'에 따르면, 이는 2011년(18.8권)의 절반 수치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문사 당 10,000편이 넘었던 신춘문예 응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문예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학생들은 존재한다. 우리신문은 마음을 담은 글을 쓰고 있다는 〈하늘새재〉와 〈소설창작단〉을 찾았다.

“시어 하나에도 이유 있어야” 마음 나누며 시 쓴다

‘하늘을 오르는 언덕’이라는 뜻의 시 창작 학회 〈하늘새재〉는 3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국어국문학과 소속 학회이지만, 성악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다. 각자 2주에 1~2개의 시를 쓰고, 격주로 열리는 세미나에선 자작시를 합평한다. 그렇게 한 해 동안 모인 시를 엮어 문집을 낸다.

항상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합평은



합평은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고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이환희 기자)

소중한 시간이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고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서은(국어국문학 2024) 씨는 “시어 하나를 가져올 때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며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늘새재에게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 차장은 “우리는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며 시를 쓰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이뤄지는 합평 시간 소설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

소설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인

〈소설창작단〉도 있다. 시작은 90년대 문예창작 특기자 전형으로 뽑힌 국문과 학생들의 모임이었다. 문예특기생들이 등단을 목표로 공부하던 학회였지만, 현재는 하늘새재와 비슷하게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활동 중이다. 매주 열리는 세미나에서 창작 소설을 합평하고, 이후 기성 작가들의 소설을 비평하는 시간을 가진다. 소설집도 발간한다.

합평은 그날의 작품을 쓴 ‘작가의 말’로 시작한다. 이날 김정숙(영어영문학 2022) 씨는 공모전 출품을 위해 썼던 소설 〈자유는 창공에 있었나〉를 가져왔다. 김 씨는 “하늘이 원래 자유를 의미하는데 하늘에서도 제약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소설을 썼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돌아가면서 각자 소설을 읽고 느낀 점을 작가에게 전한다. ‘완결성 있게 느껴졌다’는 호평부터, ‘대화가 이 정도로 친절할 필요가 있었나’하는 자유로운 비평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서덕순(소설창작) 교수도 합평 시간에 참여한다. 서 교수는 작가에게 개연성에 대한 질문을 하며 “내 소설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건넸다.

김 씨는 “창작이라는 개념을 접한 이후, 가치관과 영혼을 세상에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특성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문예 창작 잊혀진 문화는 아니다

소설창작단 권기윤(국어국문학 2022) 팀장은 “소설창작단을 하면서 소설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발전했다고 느낀다”며 “세상을 보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하늘새재 신승민(국어국문학 2024) 씨는 “시는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방식 중 하나”라며 “무심코 지나쳤던 주위의 표정, 말투, 분위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차장은 “시가 ‘지는 해’만은 아니고, 오히려 뜨고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짧은 형식인 시가 짧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에 맞는 것이다. 하늘새재 일부 회원들은 인스타그램 매거진을 운영해 3천 명이 넘는 팔로워에게 시를 보여주고 있다. 예전 같지 않을지는 몰라도, 아직 문학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심은 꿈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⑤『본관앞 소나무』

9월부터 경희기록관은 우리신문과 함께 ‘경희 유산을 찾아서’를 연재한다. 서울, 국제, 광릉 캠퍼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은 물론 경희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역사적 기록물, 경희만의 고유한 정신 유산들을 중심으로, 그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숨겨진 흥미로운 에피소드 등을 글과 사진으로 소개한다. 1차로 내년 여름까지 연재를 진행하고, 1년간의 연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2차 연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1년 전 11월 하순의 어느 날, 서울에는 이례적인 폭설이 내렸다. 밤새 내린 눈은 캠퍼스를 아름다운 은세



계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1954년 봄 서울 캠퍼스가 탄생하기 전부터 이곳 고황산 기슭을 지켜온 수령 수백 년의 소나무들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

지는 피해를 입었다. 그중 특히 많은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본관 정면 좌측에 있는 소나무다.

『경희 20년』(1969년)에 의하면, 이 소나무는 본관 석조전이 지

어지는 장면을 지켜본 주인공이다.

1953년 12월 시작된 본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설립자를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들의 눈에는 석공들의 일하는 모습이 한없이 느리게 보였다.

돌이 쌓여 올라가는 속도보다 하루빨리 완공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앞서 내달렸기 때문이다. 매일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김명복 체육대학장과 김광선 학생처장은 이 소나무를 가리키며, ‘어서 저 소나무 키만큼이나 쌓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경희가 지금의 터를 잡고 캠퍼스를 조성하기 전, 고황산 기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경희 20년』에 따르면, 이곳 일대는 채석장이었다. 채취한 돌을 운반하기 위해 소달구지가 다니던 길이 한 줄기 있었고, 길 끝에 허름한 초가가 몇 채 자리 잡고 있었다. 소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땔감으로 자른 흔적이 보이고, 낙엽마저 쓸어가 버린 그야말로 벌거숭이 황무지였다. 잡초마저 자랄 것 같지 않은 메마른 땅은 그저 황막한 산골짜기에 불과했다. 설립자 조영식 박사가 캠퍼스 후보지로 이곳을 방문

했을 때, 동행한 동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교지로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오늘의 경희 캠퍼스는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초창기부터 매년 봄가를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나서 황무지 같은 캠퍼스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

캠퍼스 설립 후 20여 년간 그렇게 심은 꽃과 나무가 30만 본 이상이었다고 한다. 관리에도 공을 들여, 매년 봄과 여름엔 소독 작업을 했고, 학생들은 송총이 잡이에 나서곤 했다. 이런 노력은 단지 캠퍼스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대학의 사명은 전인적 인격을 갖춘 문화인을 키우는 데 있으므로 자연에서 인간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자연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 경희의 오랜 철학이었다. 지금 우리 캠퍼스를 이루고 있는 나무와 꽃, 돌과 연못들은 모두 이런 철학의 반영이며, 선배 경희인들이 한 마음으로 일구고 가꿔온 소중한 유산이다.



김 선수는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분위기를 잘 타야 이길 수 있다”며 “평소에 분위기를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세연 선수 제공)

대학양궁연맹대회 1위,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

이화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양궁부 주장 김세연(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여섯 번째 주인공으로, 실업팀 광주광역시청 입단이 확정된 양궁부 주장 김세연(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를 만나봤다.

방황했던 새내기 시절 어려운 시기 극복하고 주장까지

새내기 시절, 김 선수는 누구보다 방황했다. 시합마다 받아든 성적은 고등학교 때 받은 점수보다도 낮았다. 정신력이 중요한 양궁 선수지만 해소되지 않는 긴장감으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 김 선수는 “시합뿐 아니라 연습 때도 평소처럼 활을 쏠 수 없었다”며 “방황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슬럼프를 겪는 김 선수를 보며 양궁부 최희라 감독은 “심리적 불안감을 잡아주려고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같은 운동장을 썼던 ROTC 생도들을 가리키며 “세연이 너는 피지컬·운동 신경·인성 어느 하나 빼지는 게 없으니 차라리 저곳에 들어가 인정받아라”하는 모진 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최 감독은 “그렇게 3번 정도 모질게 이야기하니 세연이가 자기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고 양궁으로 성공하고 싶다고 말했었다”고 회상했다. 양궁에 대한 김 선수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지도 방식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은 김 선수는 양궁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최 감독은 “양궁을 사랑하고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제자”라며 “세연이가 본인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실업팀 입단 기회를 얻게 돼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우리학교 양궁부 주장으로 있다. 활은 혼자 쏘지만, 양궁은 단체전이 있는 종목이다. 김 선수는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분위기를 잘 타야 이길 수 있다”며 “평소에 분위기를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감독은 “시기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생활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주장으로 선발할 때도 믿음이 갔다”며 “주장으로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 후배들뿐 아니라 지도자들이 굉장히 믿고 의지한다”고 말했다.

남달랐던 끈기 국제대회 개인전 1위

김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양궁을 시작했다. 처음 3달은 활 없이 고무줄만 당겨야 해서 함께 양궁을 시작했던 모두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그때부터 김 선수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단어는 ‘끈기’였다.

어릴 때부터 끈기 하나는 남달랐던 김 선수는 힘들었던 대학 새내기 시절도 그 원칙으로 버텨냈다. 그렇게 슬럼프를 뒤집을 기회는 찾아왔다.

‘대학연맹회장기대회’는 개인전 첫 1위의 순간이었다. 개인전 최고 성적이 3위였던 김 선수는 커리어 첫 결승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결승에 간 것만으로도 정말 좋았다”며 “개인전 결승은 처음이라 편하게 쏘더니 잘 풀렸다”고 돌아봤다.

지난 5월엔 ‘계양구청장배 국제 양궁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국내외 선수가 모두 참여한 대회에서 96강부터 시작해 1위까지 올랐다. 김 선수는 “4강부터 중계 방송과 함께 무대가 설치됐는데, 예전에 무대가 설치된 경기에서 긴장 때문에 망쳤던 경험에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엔 내가 긴장했다는 걸 인지하고 쏘니까 오히려 괜찮았다”며 웃었다.

명실상부 양궁 강국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양궁 강국이다. ‘국제대회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치열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김 선수는 “가끔 벽을 느낄 때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국가대표로 출전하기 위해선 누적된 성적으로 상위 100명 안에 든 다음, 4~5회의 선발전을 더 거쳐 8명만이 선수촌에 들어가고, 그중 3명만이 단체전에 출전한다.

김 선수는 “일단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어릴 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만을 꿈꿨는데, 대학까지 와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면서도 “그래도 목표는 크게 잡아야 하니 올림픽 금메달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졸업 이후엔 실업팀 광주광역시청 입단이 예정돼 있다. “나를 가장 먼저 불러주는 곳을 선택했다”는 김 선수의 앞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실업팀 까지 입단했지만, 양궁이 항상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다. 김 선수는 “그럴 땐 ‘그냥 다음엔 잘 되겠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간 멘탈이 나가더라도, 그래도 해야 하니까 계속 훈련하다 보면 다시 괜찮아진다”는 해결법을 말했다. 졸업을 앞둔 김 선수는 앞으로도 끈기와 노력으로 꿈에 도전할 것이다.

프로 드래프트 우리학교 선수 5명 지명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 프로스포츠 배구·핸드볼·농구 드래프트에서 우리학교 학생 5명이 지명됐다. ▲농구 안세준(스포츠지도학 2022)·우상현(스포츠지도학 2022) ▲핸드볼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김준영(스포츠지도학 2022) ▲배구부 김영태(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내년 프로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

지난 14일 열린 ‘2025 KBL(한국농구연맹)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우리학교 농구부 안세준 선수는 2라운드 6순위로 서울 삼성 썬더스에 지명됐다. 우상현 선수는 3라운드 6순위로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 지명됐다.

두 선수는 올해 U리그에서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안 선수는 U리그 평균 10.2득점과 평균 1.2블락을 기록했다. 2년 동안 농구부 주장으로 팀을 이끈 우 선수는 올해 U리그에서 평균 10.5득점과 33%의 3점 슛 성공률을 보였다. 우 선수는 “프로에 간 만큼 제 장점인 슛을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인 수비를 보강해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핸드볼부 나의찬·김준영 선수는 지난달 30일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신인 드래프트’에서 나란히 1라운드에 지명됐다. 나 선수는 1라운드 4순위로 하남시청, 김 선수는 1라운드 5순위로 두산에 지명됐다. 주장으로서 ‘2025 대학핸드볼 통합리그’ 득점왕을 수상하고 올해 통합리그 우승을 이끈 나 선수는 “올해 프로에서의 목표는 신인왕”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선수는 “지금의 결과는 함께 해온 가족, 감독님, 코치님과 대학 후배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프로 무대에서 한 단계씩 성장해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배구부 김영태 선수는 지난달 열린 ‘2025-2026 KOVO(한국배구연맹) 남자프로배구 신인드래프트’에서 수련선수 자격으로 대한항공에 지명됐다. 수련 선수는 일정 기간 팀 내에서 기량을 평가받은 뒤, 정식선수 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김 선수는 “정식선수 계약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징벌보다 교육 혁신이 먼저다

최근 대학가 온라인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대학생들이 AI를 활용하는 빙도나 범위를 살펴봤을 때 AI를 활용하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건 아니다. 오히려 징벌 대책 등의 기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AI가 대학 교육 환경 전반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규정을 강화하거나 징계 수위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학 교육과 평가 방식에서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권 주요 9개 대학의 학칙을 살펴보면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AI 기반 부정행위는 기존 부정행위의 범주만으로 규정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우리학교 또한 교수학습개발원이 제시한 AI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빠르게 변

화하는 AI 환경 속에서 '교수 재량'에 기초한 운영만으로는 새로운 상황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이는 제도의 미비 때문이라기보다, 현재 대학 전반의 교육·평가 체계가 AI 시대에 맞춰 재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도기적 현상에 가깝다.

AI 시대에 부정행위 대응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규정이 아무리 촘촘해도, 평가 방식 자체가 AI 활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지금 필요 한 것은 교육·평가 방식이 AI 환경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구성원 간의 공통된 인식이다.

대다수의 교육 전문가는 '금지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구조 중심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토론형 평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 팀 기반 문제 해결 등과 같은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은 AI가 대체하기 어렵고, 동시에 학생의 역량을 더 정확

“

대학의 역할은

AI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학습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

하게 반영할 수 있다.

AI는 이미 대학 교육의 중심 도구가 돼 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학 역할은 학생들에게 AI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학습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기준 제시, 대학 차원의 일관된 가

이드라인 마련뿐 아니라, 수업 방식 자체를 AI 시대에 맞춰 재구성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는 "이제 AI에게 '잘 물어보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과정 속에서 필요한 맥락에 맞게 물어보는 등의 올바른 AI 활용안을 앞으로 대학 교육이 제시해줘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시점 가장 필요한 것은 AI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이다. AI 기반 부정행위는 물론 학생 차원에서의 윤리 문제도 있지만, 교육 방식의 변화에서의 문제도 크다. 우리학교 역시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AI 시대의 교육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공정하고 진정성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학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졌다. AI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가 대학의 경쟁력과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2회를 하려면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한양대와의 스포츠 교류전, 제1회 '더 라이언 매치'가 끝났다. 약 300명의 한양대 학생이 우리학교 국제캠퍼스를 찾았다.

스포츠 교류전은 교내 구성원들에 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양시키기에 제격이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라이벌전 '연고전'은 그들에게 내적으로는 정체성이자, 외적으로는 사랑거리다. 60년 전통의 연고전을 당장 따라잡을 순 없겠지만,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내년에 제2회 대회가 열려야 한다.

'오픈밸'에 끝나지 않고 역사를 이어가고 싶다면 마케팅·브랜딩 노력이 필요하다. 라이언매치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실정에 맞는 기획과 홍보는 필수적이다.

체대 학생회와 운동부 프런트는 타 과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릴레이 농구'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야외에서 열린 축구경기 중엔 푸드트럭을 설치하기도 했다. 초대 대회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가장 신선한 장면은 농구·축구 경기 중 학생들로 가득한 선승관과 필드 하키장이다. 평소 U-리그 경기보다 관중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축제가 스포츠와 결합했을 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성과다.

내년엔 올해와 다른 점도 있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명분에 그치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경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경쟁과 화합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라이벌 구도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90분 동안 공만 차고 끝나는 것으로 이목을 끌 수 없다. 야구 규칙을 잘 몰라도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있는 것은 경기 외에도 즐길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 취향에 맞게 구성한다면 '제2의 연고전'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내년에도 열린다면, 한양대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보단 우리학교의 영향력이 적을 수 있지만, 함께 대회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 내년엔 올해보다 멋진 제2회 '더 라이언 매치'가 열리고, 수십 년 뒤에도 최강 사자를 가리는 역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건강한 경선을 위해

경선의 그림자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감정적 발언이 오가는 순간도 다 수 존재했다. 퀘스트 선본이 노하우의 매직패스 도입 실효성을 묻자, 노하우는 "이미 2022년 '경희블라썸'에서 도입된 방식인데, 현 총학 중집장으로서 인지가 부족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 경쟁이 감정 공방으로 열어지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토론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에브리타임'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특정 후보자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하거나, 특정 선본 참모의 SNS 프로필 사진을 왜곡해 갈등을 조장하는 글이 퍼져나갔다. 이는 사실 관계를 흐리고 온라인 익명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비방 여론전이다.

경선의 의미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검증을 통한 민주적 선택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회가 감정적 공세가 아닌 정책 중심의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후보자 개인을 공격하거나 허위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 필요하다. 이번 사례는 경선이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와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만평 토론회는 감정적 갈등과 온라인 왜곡 여론을 남겼다.

붉은 사자의 승리로 장식한 ‘제 1회 더 라이언 매치’ 경희-한양 스포츠 교류, 열띤 호응 속 마무리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서민주 기자 smj13221@khu.ac.kr
유진우 기자 jinwooryu@khu.ac.kr

우리학교와 한양대의 스포츠 교류전 ‘제 1회 더 라이언 매치’가 지난 19일 국제캠퍼스에서 열렸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 진행됐지만, 두 대학 학생들의 응원이 모여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우리신문은 화합의 장이 된 현장을 찾았다.

처음 열린 ‘더 라이언 매치’ 축구부 제외 전 종목 승리해

이날 주 경기장으로 쓰인 필드하키장 관중석은 경기 시작 전부터 학생들로 가득 차 빈틈이 없었다. 경기장을 둘러싼 도로에는 푸드트럭 행렬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푸드트럭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으며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경기는 ▲농구 동아리 ▲농구부 ▲축구 동아리 ▲축구부 네 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축구부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 농구 동아리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고상현(체육학 2022) 씨는 “한양대와 라이벌이 형성된 만큼 이번 경기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며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신 학우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체육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계열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특히 농구부 경기 하프타임 동안 진행된 ‘릴레이 농구’ 이벤트는 여러 학과에서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양대 재학생 김지영 씨는 “1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기대 만큼 관중도 많고 알찬 행사들로 가득해 너무 재밌었다”며 “내년에도 교류전이 열린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응원전에 현수막 대전까지 경기 외에도 볼거리 제공해

한양대 총학은 이날을 위해 버스 8대를 동원했다. 버스 탑승자 230여 명에 더해 50명 가량의 학생이 우리학교를 찾았다. 체대 학생회 박성훈(스포츠지도학 2022) 회장은 “처음 인 만큼 각 캠퍼스에서 개최해 인원이 분산되며 보다는 접근성을 갖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



농구 동아리 경기에서 체육대학 농구동아리 ‘zone’이 한양대 연합 농구 동아리를 상대로 45-39로 승리했다.

(사진=김예찬 기자)



①한양대를 향해 ‘고양이 소리를 내봐 한냥냥냥냥’ 우리학교를 향해 ‘비실기라고 비실대지 말자’란 문구의 현수막이 선승관에 걸려있다. ②폐회식은 우리학교 학생들과 한양대 학생들이 필드하키장에 함께 모인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사진=김예찬 기자)

리학교에서만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 외에도 볼거리가 많았다. 두

학교의 열띤 응원전이 있었다. 우리학교와 한양대 응원단이 연이어 세 곡씩 응원전을 펼치며 학생들의 열

띤 환호를 유도했다.

우리학교 응원단 ‘컬스라’ 단원 이규원(스포츠의학 2025) 씨는 “서로를 존중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과열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캠퍼스 곳곳에는 각 학교를 응원하는 재치 있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선승관에 걸려있던 한 현수막은 우리학교와 상징 동물(사자)이 겹치는 한양대를 두고 ‘고양이 소리를 내봐 한냥냥냥냥’이란 문구가 적혔다. 이에 맞서 한양대는 ‘비실기라고 비실대지 말자’는 문구를 걸었다. 실기 평가가 없는 우리학교 체대 학생을 저격한 거다. 이를 본 김동규(컴퓨터공학 2025) 씨는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학교 간의 라이벌 의식이 생겨나는 것 같아 흥미로웠고, 교류전의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연례행사 위한 첫걸음 승패를 넘어선 대학 스포츠의 의미

행사는 두 대학 간의 스포츠 경기를 통해 대학 간 교류를 넓히고자 기획됐다. 두 학교 모두 사자를 마스코트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으로

부터 기획이 이뤄졌다. 대외협력처가 기획을 하고, 체육대학 학생회가 운영을 책임졌다.

대외협력처 김도균 처장은 “대한민국 체육의 선두 주자인 우리학교와 한양대가 힘을 합치면 대학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말했다.

대학 간 교류 외에도 학교 위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있다. 이정학(스포츠경영학) 교수는 “스포츠 교류전이 대학 브랜드와 위상을 높이고, 학생 모집과 후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학사 일정 조율을 통해 신입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이나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스포츠 교류전인 만큼, 추후 행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이번 스포츠 교류가 체결된 후 건국대와 성균관대에서 관련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다”며 “미국 아이비리그 스포츠 경기와 같이 국내 10대 대학에서도 연합 스포츠 리그를 시도해보자는 의견을 가진 교수님들도 계신다”고 말했다.